



유스케히시다작가
가 촬영한 북한인
쪽과 남한 소녀.

남북, 다름이 사라지고 있다

‘경계 한반도 -border | korea’ 11일 ~ 9월 6일 여수 노마드갤러리

일본 사진작가 유스케 히시다 7년간 남북 오가며
동일 조건·동일 구도로 촬영... 11일 작가와의 대화

“지도상에 그려진 하나의 줄이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

일본 사진작가 유스케 히시다는 늘상 궁금했다. 그가 의문을 품었던 ‘줄’은 바로 ‘38선이라 불리는 군사분계선’이다. 70여년도 더 전에 분단돼 직선거리로 190km 떨어진 곳에서 서울과 평양 사람들은 각각의 삶을 살아간다.

유스케 작가는 카메라를 들고 7년간 북한과 남한을 방문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양쪽의 일상적 풍경과 사람들 모습을 최대한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구도에서 촬영했다. 그의 영글에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한 북한의 70대 어머니와 가족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은 남한의 70대 어머니, 기타를 메고 같은 포즈를 취한 남한과 북한의 소녀가 담겼다.

한 이방인의 영글에 잡힌 사진 속 인물과 풍경들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유스케 히시다 개인전 ‘경계 한반도 -border | korea’가 오는 11일부터 9월6일까지 대안공간 여수 노마드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70년을 맞는 여순항쟁을 기념하는 특별 초대전이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차례 북한을 방문한 유스케 작가는 평양의 학교에서 만난 소녀 등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과 일상적인 풍경을 촬영했고, 같은 방식으로 남한에서 동일 조건, 동일 구조로 작업을 했다. 그는 비슷한 나잇대의 사람, 기상조건, 건물과 산천의

배치를 찾아 몇번이고 걸음을 옮겼다.

작가는 자신의 사진을 통해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삶과 생각과 운명의 대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7년간 작업하면서 남북한 분계선을 사이에 둔 사진들 사이에 점점 다름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차이는 더 사라질 지 모른다. 극적인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북한에 대한 고착화된 가치관에 파문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북한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일본인의 북한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 TV에서 보여지는 북한의 이미지는 ‘무서운 나라’, ‘이상한 나라’인데, 거기서 생각을 멈추기 보다는 영상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의 작품은 지난해 사진집 ‘경계 한반도 -border | korea’가 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김상현 노마드 갤러리 관장 역시 이 사진집을 보고 직접 작가와 연락을 시도했다.

“알고 지내던 사진작가로부터 사진집을 소개받아 보는데 그동안 제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에 혼선이 왔어요. 일상의 풍경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됐죠. 또 어떻게 작업했는지 궁금하기도 해 직접 메일을 보냈고 전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작가는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그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서울,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남과 북(왼쪽)의 인물들,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남과 북이 똑같다.

인천, DMZ 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집에 실린 100여점 가운데 6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악기인 아코디언 합주를 하고 있는 소녀들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있는 한국의 소녀들,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젊은 엄마, 기타를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들이 사진에 담겼다. 유스케 작가는 11일 갤러리를 찾아 관객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일요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11시~오후 7시. 문의 061-921-77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영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 첫 참가

15~16일 3회 공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 김광복)이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오는 15-16일 이틀간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과 로열마일 거리에서 총 3회 공연한다.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쟁의 상흔과 참담한 현실을 문화예술로 치유하고 활기를 되찾기 위해 시작된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모태로 탄생했다. 1947년 당시 클래식, 오페라, 무용 팀을 주로 초청했는데 초청 받지 못한 공연팀들이 자생적으로 공연을 하면서부터 ‘프린지페스티벌’이 탄생한 것이다.

해마다 약 1만 6000여명의 예술가들이 코미디극, 음악, 어린이극, 뮤지컬, 오페라, 무용, 신체극, 전시 등 2000여개의 공연을 펼치고 매년 200만장이 넘는 티켓이 판매되는 세계 3대 페스티벌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8월 3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축제가 펼쳐진다.

전 세계 예술인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축제에 창단 24년 만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김광복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국악관현악곡을 비롯해 판소리, 타악, 태평소 등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성당공연과 거리공연의 프로그램은 장소에 맞게 특색 있게 선보인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2019 세계수영대회 홍보를 위한 깜짝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16일 1120년 건축된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 공연에서는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과 맛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레퍼토리는 관현악곡 ‘산빛이’, ‘하늘을 담은 바다’, ‘남도아리랑’, ‘판놀이II’,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3악장’ 등이다.

에딘버러 구시가지의 중심부인 로열마일 거리 공연에서는 관객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길놀이 형태로 태평소와 사물놀이로 경쾌하게 공연의 문을 열고,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령’, 모듬북 협주곡 ‘타’ 등을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주국제관악제 오프닝 무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윤영문)이 오는 10일 제주시 탐동해변 공연장에서 열리는 2018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제주 국제 관악제는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세계 26개국 80여 팀, 4000명의 연주자가 참가하는 대형음악축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국제 관악제 오프닝 무대에 오른다. 들려줄 음악은 일본 작곡가 아카라 센쥬의 대표곡 ‘Eternal light’, 80년대 듀엣 가람과 뫌의 듀엣

곡 ‘생일’, 제27회 MBC 창작 동요제 대상곡인 ‘아빠 사랑해요’, 가족의 사랑곡 ‘우리집’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31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에 참가해 23개 팀과 함께 공연한다. 또 9월초에는 중국 취안저우에서 열리는 2018정음성음음악축제에 참가하며 9월 중순에는 우리 지역 소년소녀합창단 14개 팀, 500여명이 참가하는 ‘제2회 광주광역시 소년소녀합창제’를 개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막무가내 상상학교’ 1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그동안 배운 연기를 보여 드릴게요.” 극단 사람사이가 진행한 퍼블릭 프로그램 ‘막무가내 상상학교’가 오는 11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막무가내 상상학교는 지난 4월 참가자 모집을 통해 총 35명에게 주 1회 이상 연극·연가·노래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왔다. 강사는 극단사람사이 송정우 대표를 비롯 수석단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공연은 수업의 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1부 ‘헤더웨이집의 유령’ 공연, 2부

1인 독백연기를 선보인다.

송정우 대표는 “35명의 참가자에는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배우와 스태프 역할을 해보며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극단 사람사이는 오는 9월 21일, 22일 이틀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셰익스피어 작·송정우 연출의 ‘리어왕’을 공연할 예정이다. 문의 010-2054-4280, 010-3864-9944, 010-5354-614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